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2호 [루게 제26136호] 주제 107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수뇌상봉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된다.

비행장에는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들고 나와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군중들은 뜨거운 민족애와 포용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외무상 리용호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룩근대장 김수길동지, 인민무력상 룩근대장 노광철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오전 10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맞이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근 4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1 면 에 서 계 속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어 따듯이 맞이 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었다.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공식수행원들인 정 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

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 사들과 기자들이 왔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21발의 계포가 울리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은 사열대에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군중명예 위병대의 분렬행진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었다.

문재인대통령이 탄 차는 모터썰클의 호

위를 받으며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으로 향 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연도에서 10만여명의 시민들이 동포애의 정을 안고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련못동입구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무개차에 옮겨 라시었다.

북남수뇌분들을 모신 차가 련못동입구를 떠나 봉흥네거리와 려명거리를 지나는 연도에서 군중들은 《조국통일》, 《평화》, 《번영》이라고 웨치고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흔들며 열광적인 환호를 울 리었다.

4.25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거리의 곳곳에 꽂 들어찬 군중들, 샴림집창가들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시민들의 환영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저어주시었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타신 무개차는 환영의 연도를 지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동지를 숙소에 안내하시었다.

백화원영빈관 종업원들은 문재인대통령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제 5 차 북 남 수 뇌 회 담 진 행 경 애 하 는 최 고 령 도 자 김 정 은 동 지 와 문 재 인 대 통 령 사 이 에 회 담 이 있 었 다



역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회담이 9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본부청사를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회담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적인 평양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본부청

사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거래의 마음은 하나! 2018. 9. 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기였다.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문재인대

통령은 올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두차례의 상봉과 회담이후 긍정적으로 훌륭하게 발전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상황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호상 관심사로 되고있는 중요문제들에 관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였다. 회담은 진실하고 호상 이해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정치보도반

문 재 인 대 통 령 의 부 인 이 옥 류 아 동 병 원 과 김 원 균 명 칭 음 악 종 합 대 학 을 참 관 존 경 하 는 리 설 주 녀 사 께 서 동 행 하 시 었 다

문재인대통령의 부인 김정숙녀사와 일부 수녀들이 9월 18일 옥류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와 함께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 환영하였다. 문재인대통령 부인과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고 동행하시였다. 병원 의료인들과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온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나 담소도 나누

김정숙녀사는 옥류아동병원의 회복치료실, 대학의 성악학부 강의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음악당에서 대학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김정숙녀사와 일행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의 성악학부 강의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음악당에서 대학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이 9월 18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평양대극장앞에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따뜻이 맞이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여성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극장 특별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공연관람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남측인사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용 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정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곡 《반갑습니다》의 노래선율이 울리는 속에 소개자가 남녘의 동포들을 반갑게 맞는 우리 인민들

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성의껏 준비한 환영공연의 시작을 알리었다.

출연자들은 가야금을 위한 판현악 《아리랑》, 남성독창 《동무생각》, 현악중주와 노래 《세별》을 비롯하여 온 거리의 한결같은 통일열망과 민족적향취가 차넘치는 종목들을 아름다운 선율과 세련된 춤물풍으로 펼쳐보이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는 가요들과 세계명곡들이 환영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펼쳐지는 무대에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가무 《달려가자 미래로》가 울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장내를 민족화합의 후더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출연자들에게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의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은 자기들을 극진히 맞아주고 훌륭한 공연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연회장인 목란관 홀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따뜻이 맞이하시었다.

연회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남측수행인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인민무력상 북극대장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정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우동지, 조국평

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 남측인사들을 꽃피는 봄계절에 이어 풍요한 가을에 또다시 만나게 된 반가운 심정을 표명하시면서 대통령내외분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답례연설을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평양에 초청 해주시였으며 극진히 환대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영남 동지가 남측의 대통령수행원들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남측의 대통령수행원들을 만났다. 김영남동지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식수행원들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제현 산림청 청장과 일부 특별수행원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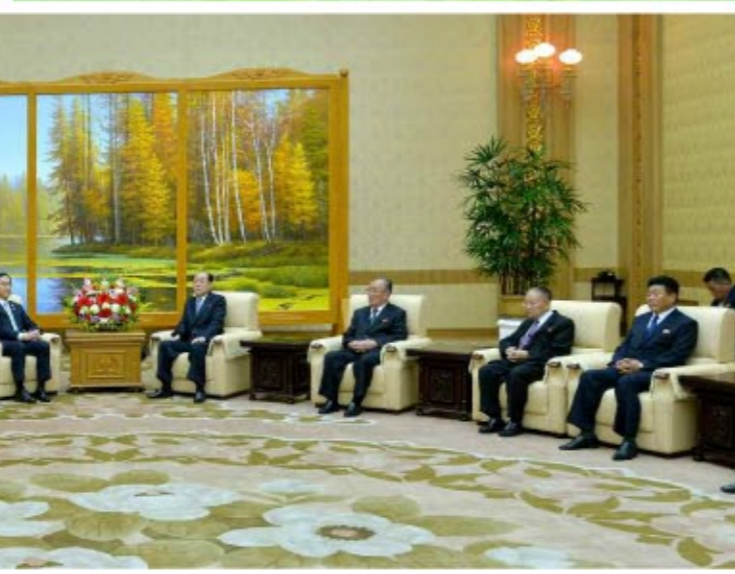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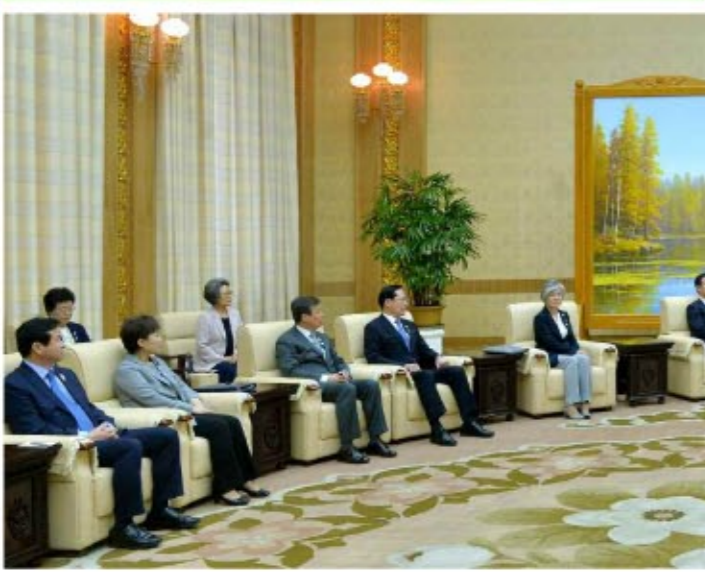
회 서기국장 겸 의장 박명철동지,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리종혁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전중수동지, 관계부처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담화는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측의 사회계인사들을 만났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수행원들인 남측의 사회계인사들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동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식수행원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특별수행원들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수행원들인 남측의 사회계인사들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관계부처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한편 이날 내각부총리 리명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8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흥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전국의 학과 학토론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전국의 학과 학토론회가 17일과 1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전국의 학과 학토론회가 17일과 1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전국의 학과 학토론회가 17일과 1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지도교원들의 경험 발표회와 교과과 학성과 전시회, 소조원들의 창안품 및 솜씨전람회 진행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지도교원들의 경험 발표회와 교과과 학성과 전시회, 소조원들의 창안품 및 솜씨전람회 진행.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지도교원들의 경험 발표회와 교과과 학성과 전시회, 소조원들의 창안품 및 솜씨전람회 진행.

가을걷이전투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사상공세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당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도안의 군소조직들과 협동벌들에 가을걷이와 관련된 2만 8 900여명의 구조와 선전화, 표어가 게시되고 11만 5 000여점의 붉은기가 전개되어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당조직들은 가을걷이와 관련된 강사, 품로자강연강사, 도혁명사적관 강사, 도계급요양관 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들을 꾸어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안악군과 배천군, 봉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군들에 내보내어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벌리게 하였다. 안악군당위원회에서는 군소조직에서 가을걷이와 관련된 구조와 선전화들을 게시하고 군당위원회들을 협동농장들에 내보내어 분위기조성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도록 하였다. 한편 200여명의 군급기관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정치사업을 진행하

도록 하였다. 당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도안의 군소조직들과 협동벌들에 가을걷이와 관련된 2만 8 900여명의 구조와 선전화, 표어가 게시되고 11만 5 000여점의 붉은기가 전개되어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당조직들은 가을걷이와 관련된 강사, 품로자강연강사, 도혁명사적관 강사, 도계급요양관 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들을 꾸어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안악군과 배천군, 봉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군들에 내보내어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벌리게 하였다. 안악군당위원회에서는 군소조직에서 가을걷이와 관련된 구조와 선전화들을 게시하고 군당위원회들을 협동농장들에 내보내어 분위기조성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도록 하였다. 한편 200여명의 군급기관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정치사업을 진행하

고되고있다. 시당위원회는 9월 4일 시안의 포전방송기재들의 전원보장정형과 자동정형에 대한 판정을 포전에서 진행하고 그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다. 직외강연강사들과 품로자강연강사, 출판물보급원들로 집중경제선동대들을 꾸어 각 농장에 내보내는 한편 동녀명예선동대원들이 들끓는 포전에서 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얼마전 석미협동농장에 나간 시당위원회일군은 트랙도르운전수, 부림소관리공들을 대상으로 정치사업을 벌리었다. 가을걷이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기능공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농기계를 만나고 있는데서 결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료해하고 대책을 세웠다. 시안의 농장원들이 가을걷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트랙도르와 부림소들의 가동률이 훨씬 높아져 시적인 강냉이

가을걷이실적은 9월 14일 현재 90%에 달하였다. 신원군당위원회에서도 읍지구에서 가을걷이로 불리우기는 구조와 표어, 선전화들을 게시하고 방송선전차와 기공예술선동대를 통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80여명의 군급기관 일군들을 50여개의 공장, 기업소, 200여개의 인민반들에 파견하여 정치사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17개 농장들의 포전에 가을걷이와 관련된 1 350여점의 구조, 표어, 선전화들과 5 050여점의 붉은기가 전개되고 100여개의 포전방송기재들이 단가동되어 농장원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이밖에도 배천군당위원회, 온천군당위원회, 제령군 삼지강리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위력한 선전선동공세를 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추동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 만경대 방문, 여러 곳 참관

부영역 흥련 오사카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항일의 현전대리를 헤치시며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만단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축하단은 또한 평양교원대학, 평양화장품공장, 류현신발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 갔던 수산성대표단 귀국 수산성 송춘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수산성대표단이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2차 국제수산산업 및 수산업, 수산물제품, 기술

해외동포대표단들이 떠나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흥련 본부위원장대표단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지송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8

제 16 차 평양 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의 대표단, 대표들 도착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령대관관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에 힘을 넣어 시련생산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란팡에서는 강, 직장별로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려일으켜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마다 기술혁신목표들을 명백히 세우고 일군들이 기술자, 기능공들이 맡은 과제들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성심성의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란팡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 을 통하여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잘 알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기 위한 사업과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사업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결과 란팡의 기술자들이 창안한 설비가 제 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어 식량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로동동원 김 봉 일

